

- ▶ 2007. 1. 26. (금) 배포
- ▶ 총 2쪽(사진없음)
해설자료 6쪽

▶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신현구
T E L : 02-784-7683
F A X : 02-3775-0675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완료

- 고령화에 대한 포괄적인 기초 통계자료 구축 -

-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최영기)은 2006년 7월부터 45세 이상 중고령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제1차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동년 12월에 완료하였음. 한국노동연구원은 앞으로 매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실시하여 고령화에 대한 정책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 조사 목적
 -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도 개혁 및 정책 결정을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착하고 여러 분야의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며,
 -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화에 대한 정책 및 학술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 미국(HRS)은 1992년, 영국(ELSA)은 2002년, 유럽 연합 10개국(SHARE)은 2004년부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령화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태국도 현재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준비중에 있음.
- ◆ 조사 대상 : 전국 6,171개 가구(제주도 제외)에 거주하는 45세이상 중고령자 10,255명
- ◆ 조사 내용 : 인구학적 특성, 가족관계,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등

◆ 면접 방법 :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고용 관련 주요 결과를 외국 고령화패널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일하고 싶은 의욕은 높지만, 일자리 만족도는 낮으며 건강 악화 및 일자리 부족 등으로 노동시장을 은퇴한 비율이 높았고, 은퇴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자신의 일자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중고령자는 우리나라가 58%인데 반하여, 유럽 국가들은 약 93%, 미국 역시 약 90%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음.
- 우리나라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49%, 자영업자의 60%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은 임금근로자는 5%, 자영업자는 10%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
-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대신 자영업을 하는 이유로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서'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자영업을 하는 4명 가운데 약 1명(23%)은 임금근로 부문에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 은퇴 이유로는,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와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약 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공적 연금 자격 취득이 약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은퇴한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미국은 91%인 반면, 우리나라는 56%로 나타났고, 은퇴후가 은퇴전보다 좋다는 응답은 미국이 46%인 반면 우리나라는 8%로 나타남. 대신 은퇴후가 은퇴전보다 더 나쁘다는 응답이 우리나라는 56%인 반면 미국은 1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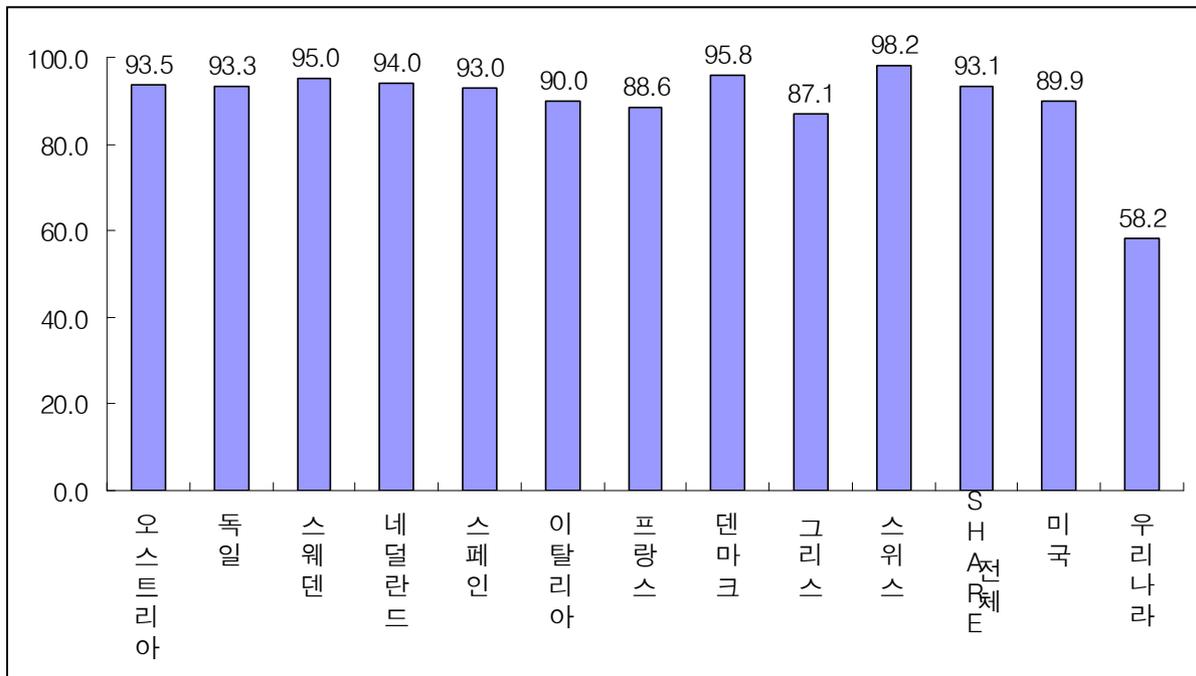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 자료 참조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주요 조사 결과 해설 자료】

1)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

-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나 미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는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58%인데 반해, 유럽 평균은 93%, 미국 역시 90%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와 서구 선진국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하여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도 고령의 나이에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근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보상 수준이 좋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그림 1> 50세 이상 취업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일자리 만족도



주: 유럽과 우리나라는 “나의 일자리에 만족한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며, 미국은 “나는 진정으로 일하기를 즐긴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임.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우리나라). 2006.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유럽). 2004.

2) 취업자의 은퇴 계획

- 현재 일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언제 은퇴하겠는가를 조사한 결과, 임금근로자는 49%, 자영업자는 60%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미국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5%, 자영업자는 10%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편 건강히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중고령자를 제외하고,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은퇴 연령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 평균 64세, 자영업자 평균 69세로 종사상지위에 따라 약 5년 정도의 차이를 보였음. 반면 미국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평균 65세로 나타났음.

<표 1> 50세 이상 취업자의 은퇴 의사 및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평균 연령

구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	희망하는 은퇴 연령(평균)
임금근로자	우리나라	49.4%	63.7세
	미 국	5.1%	65.3세
자영업자	우리나라	59.7%	68.9세
	미 국	9.9%	65.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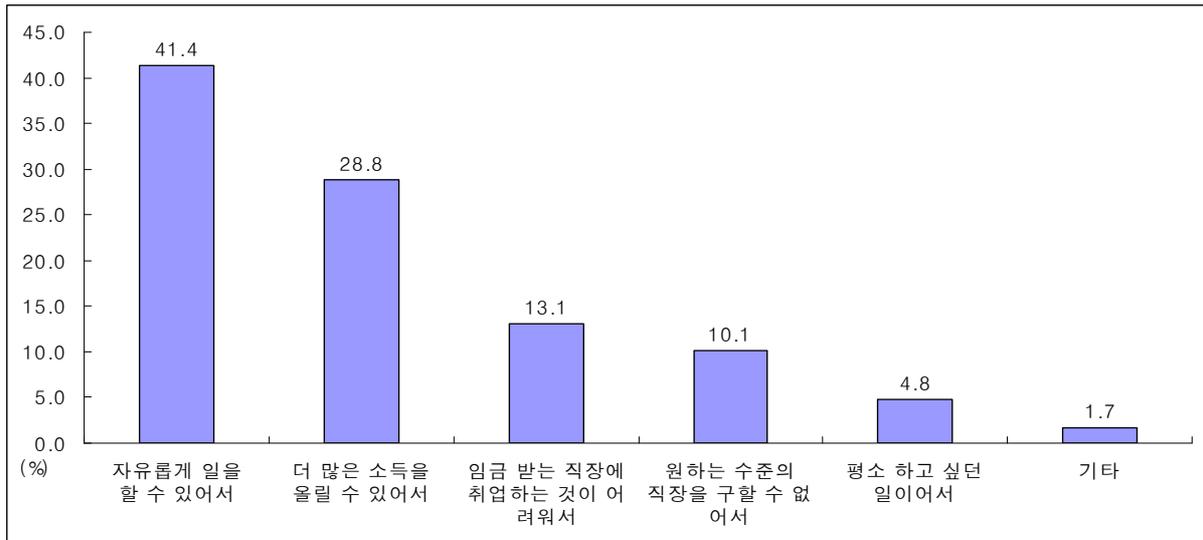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우리나라). 2006.
Health and Retirement of Study(미국). 2004.

3) 자영업을 하는 이유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일하는 대신 자기 사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임금근로에 비하여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9%를 차지함.

- 이처럼 자발적인 자영업 선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13%, ‘원하는 수준의 근로조건을 가진 직장을 찾을 수 없어서’ 10% 등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고령자 가운데 약 23%는 임금근로 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자영업을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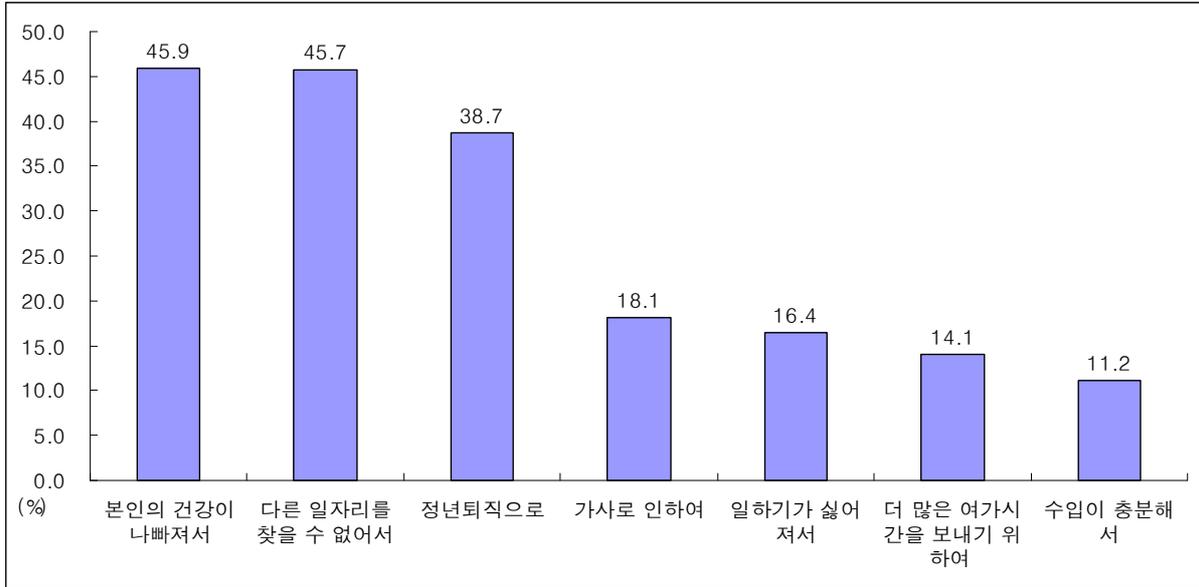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우리나라). 2006.

4) 노동시장 은퇴 이유

-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를 물어본 결과, 본인 건강이 나빠서 46%,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은퇴하였다는 응답 역시 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더불어 정년퇴직으로 은퇴하였다는 비율도 39%로 나타나서 많은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 이유로 인하여 은퇴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 은퇴 이유는 대부분 연금자격 취득을 통한 자발적인 은퇴인 것으로 나타남. 공적연금 자격 취득 50%, 기업연금 자격 취득 9%, 개인연금 자격취득 2%, 조기 은퇴 자격 취득 13% 등으로 나타났음(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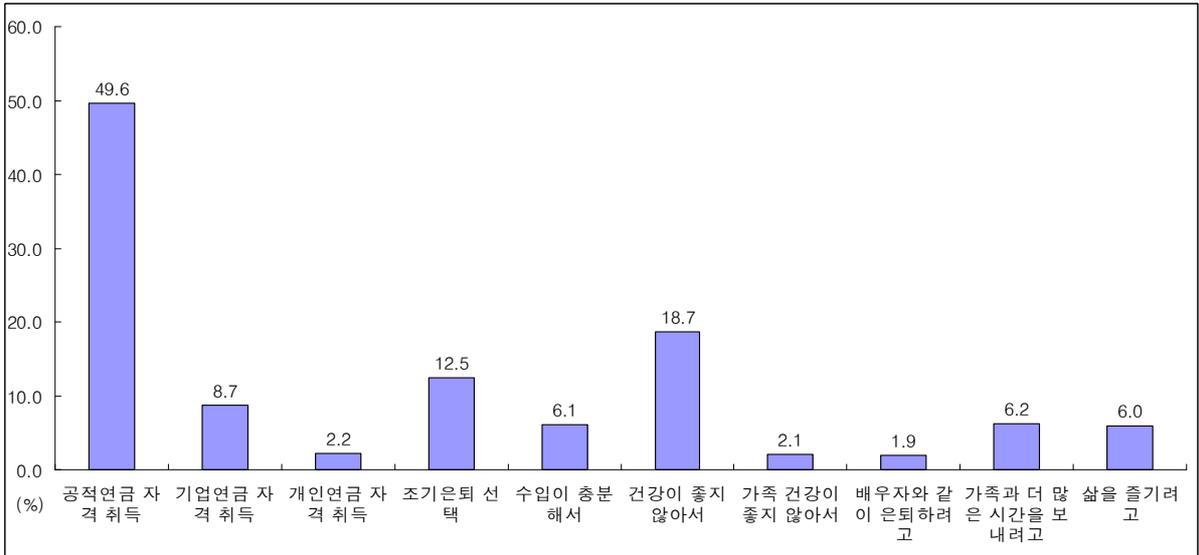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은퇴했다는 응답은 유럽에서는 공적연금 자격 취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그 비율은 19%에 그침.

<그림 3>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유(50세 이상), 우리나라(1,2순위 복수응답)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우리나라). 2006.

<그림 4>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유(50세 이상), 유럽 10개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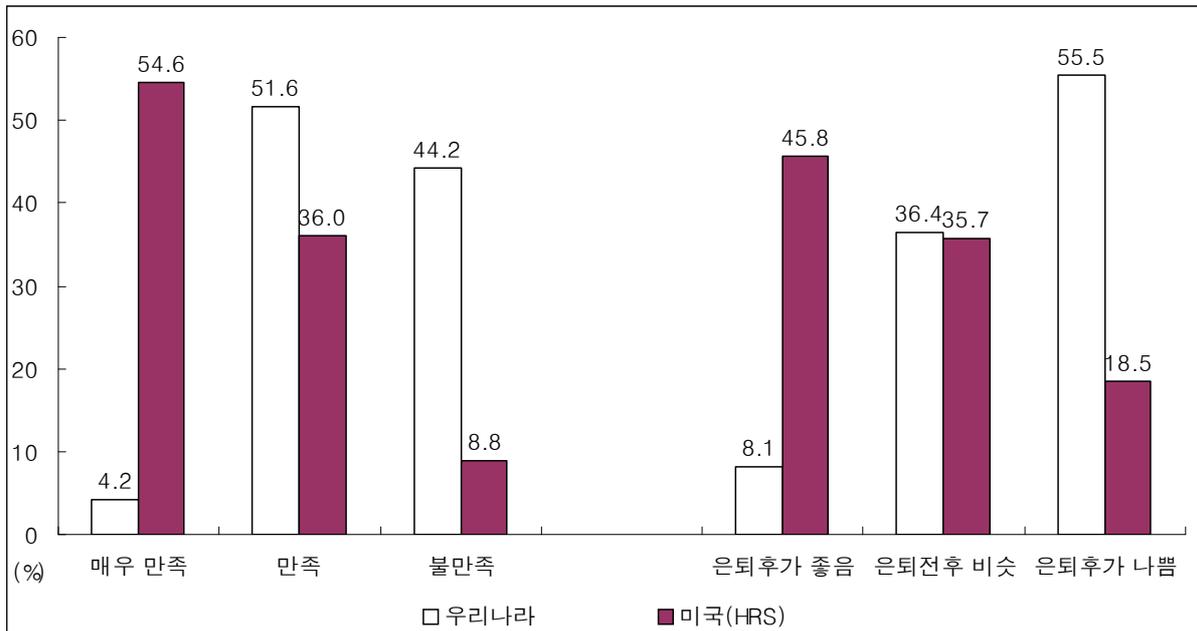


자료: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2004.

5) 은퇴에 대한 만족도

- 노동시장을 은퇴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포함)는 응답은 56%,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4%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은퇴후가 은퇴전보다 더 좋다는 응답은 8%에 그친 반면, 은퇴후가 더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55%로 훨씬 많아서 노동시장 은퇴자 2명 가운데 1명은 현재 은퇴 상태가 은퇴 전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미국은 은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만 55%였고 만족한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모두 91%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9%로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었고, 은퇴전보다 은퇴후가 좋다는 응답도 46%인 반면, 은퇴후가 더 나쁘다는 응답은 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우리나라와 미국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에 대한 만족도(50세 이상)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우리나라). 2006.
Health and Retirement of Study(미국). 2004.

※ 부표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패널 구축 현황

시도	가구	개인
서울	1,076	1,767
인천	400	556
경기	1,170	1,936
강원	215	391
부산	450	743
울산	188	318
경남	390	676
대구	337	562
경북	361	602
광주	233	401
전북	292	485
전남	293	480
대전	243	390
충북	235	392
충남	288	556
합계	6,171	10,255

※ 패널 구축 대상은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임. 이번에 구축한 패널을 대상으로 매년 고령화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losa.re.kr>)에서 찾아볼 수 있음.